

한화계열사 감사가 '알바 피해자' 동원

■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수사

청담동 술집사장, 로얄박스와 동원 인정 피해자들, 합의금 80억 요구설 전면 부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북창동 술집에서 보복폭행을 할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 감사가 김 회장의 차남과 싸웠던 일행의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 청담동 지역 술집 종업원 4명을 동원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4일 사건 당일 김 회장이 G가라오케에 갔을 때 북창동S클럽 종업원이 4명만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을 폭행했던 일행을 다 데려오라"고 지시하자 김 회장이 폭행사건과 무관한 청담동 일대 술집 종업원 4명을 매수해 데려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이 이들 4명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회장이 평소 한화그룹 김도 비서실장 및 범서방과 행동대장 오모씨와 친분이 두터웠던 점에 비해 이들 두 명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통화내역 조회 결과 김 회장은 폭행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서방과 출신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모씨가 이날 출두하는 대로 사건 당일 저녁 나씨의 식당에서 김도 비서실장과 오씨가 식사를 함께 했는지, 그 자리에 김 감사도 동석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나씨의 음식점을 압수수색해 사건이 발생한 3월8일 저녁 한화그룹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했음을 보여주는 매출전표를 찾아냈으며 당시 김 비서실장이 오씨를 만나 인력동원을 요청했다는 첩보도 입수했다.

경찰은 또 전남 권투선수 출신의 청담동 유흥업소 사장 장모씨를 소환해 로얄박스와 조직원 2명을 동원해 청계산과 북창동에 갔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 회장이 조폭 등 외부세력을 끌어들이는 의혹과 관련해 장씨가 로얄박스를 동원한 점, 범서방과 행동대장 오모씨와 D토건 김모사장이 각각 일부 폭력배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담동 음식점 사장 나씨가 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첩보도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캐나다로 출국한 오씨가 조폭 동원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 및 계좌추적 절차에 들어갔다.

아울러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제기된 '합의금 80억원 요구설'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물어 봤지만 "죽어도 80억원을 요구한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15일 피해자들을 소환해 정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구속 수감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경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남대문 경찰서에서 강대원 수사과장이 수사진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뒷말 무성한 광주시의회 해외연수

연수 목적·여행사 선정 사고 잡음...위원회 감정 대립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수 목적과 여행사 선정을 둘러싼 위원회 간 감정대립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소속 의원들은 중심으로 오는 6월12일부터 8박9일의 일정으로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등 4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당초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숙)가 지난 3월부터 유럽의 폐기물시설 시찰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 하지만 4월말에 문화수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재홍)가 동행할 예정이던 여행사 선정이 지연되면서 이 과정이 변경되고 여행사마저 교체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교사위는 P여행사를 상대하며 여행일정을 잡던 중이었으나 문화수도특위가 참가하면서 주관 여행사가 A여행사로 바뀌고 방문지역도 대부분 바뀌었다.

이에 대해 문화수도특위 측은 여러 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사위 측 상당수 의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당초 목적했던 폐기물시설 견학이 한

번밖에 없어 교사위가 당초 목적했던 방향과 다르게 여행일정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사위 소속 6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열고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4명이 해외연수를 포기하고 문화수도특위 소속과 중복된 3명의 의원 중 2명만이 참여를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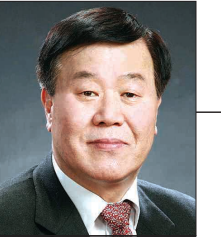
하지만 이같이 해외연수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잡음이 일면서 의원들 참여가 저조해지자 광주시의회는 연수 대상을 전체 의원으로 확대, 참여 의원을 모집했으나 14일 현재 8명에 불과한 상태다.

한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시설 견학 등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해외 연수 참여가 달라 다른 업체로 선정되는 등 잡음이 나오는 연수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원들간 해외연수 파행은 연수의 주도권을 놓고 교사위와 행정위 주관 문화도시특위의 감정대립까지 겹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기고



이원걸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이는 2004년 4월 여야 합의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체화 된 것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175개 공공기관을 결코 딱 나눠주듯 배분한 것이 아니라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분산 배치하기로 한 것이다.

한전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 지금까지 한전 본사의 나주 이전을 위해 모범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한국전력의 성공적인 지방이전에 혁신도시의 조기정착은 물론 국토균형발전의 성과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동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78%가 이전지역에서 근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마

또한 급변 하반기중에 본사 사옥 설계 작업을 착수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지금 18개 이전기관이 준비하고 있는 실시절차 체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본사의 나주 이전 후 서울 사무소 운영계획은 없다.'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겉데기'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언론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현 삼성동 본사부지는 정부방침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지방이전계획 승인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종전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한전의 축적된 기술은 호남권의 산화인 네트워크 구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전, 혁신적인 지방이전 모델로

치 한전이 지방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한전은 물론 지역 주민까지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신문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본사 이전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의 불만 의견이 침소봉대되어서는 곤란하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때에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전은 결코 공수표를 남발하는 회사가 아니다. 오랜기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의 기업이다. 이미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듯이 우리는 2012년까지 성공적인 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한 종합적인 이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여기에는 나주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질 것이며,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한전의 명성은 나주 혁신도시의 위상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혁신도시는 보강절차를 진행중이다. 오랜세월 동안 살아온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옴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전은 본사 이전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인지, 여하히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를 다같이 생산적인 측면에서 고민하고 협의해 나가는 것이다.

국민의 기업으로서 한전은 참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은 물론 혁신도시의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승연 수사' 경찰도 불똥

'늑장수사' '재벌뵈주기' 본격 감찰 불법 밝혀지면 사법처리 불가피

경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자체 감찰을 통해 수사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로 해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찰청 감사관실이 직접 나서서 감찰조사의 초점은 '늑장수사'와 '외압' 의혹 등 크게 2가지다.

감사관실은 일단 3월 9일 새벽에 이뤄진 112 신고 접수와 태평로지구대원 출동부터 같은 달 28일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될 때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조사해 수사 지연 경위를 밝히기로 했다.

경찰은 3월 9일 0시 7분께 '북창동 S클럽에서 손님이 직원들을 폭행했다. 가해자가 한화 그룹 회장 자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4분 뒤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감사관실은 당시 근무일지와 지령 상황부 등을 근거로 태평로지구대의 사건 당시 현장 대응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림 방침이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한화 고문으로 있는 최기문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고위 경찰 간부들이 수사팀이나 수사 지휘 계통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시도한 것 아니냐는 '외압 의혹'도 조사기로 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위해 수사팀 관계자들과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들로부터 전화 통화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토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한화측의 접촉 시도와 사건 이첩 등 수사 관련 조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 감찰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 무마 청탁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내부 문책뿐 아니라 관련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아래에 명기된 곳은 모두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란!**

현재 광주시 개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본란에 나와있는 19곳 뿐입니다. 모두 대한 성형외과 학회 정회원이며 의사면허증 획득후 1년의 인턴생활과 대학병원급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시험에 합격하여 4년간의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을 마친후 1·2·3차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 **성형외과 전문의의 올바른 구별 방법**

1. 선택한 병원 상호를 정확히 확인
 - 성형외과 전문의인 경우 → ○○○성형외과, ○○○성형외과의원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 ○○○의원 진료과목 성형외과
2. 병원내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증 확인
3.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나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확인

(02)3472-4243 www.cosmeticsurgery.or.kr
(02)3472-4252 www.plasticsurgery.or.kr

■ 허우희 성형외과 ☎ 223-9595
전대병원 오거리

■ 최석현 성형외과 ☎ 224-9900
그랜드호텔 옆 천변쪽

■ 교 토 성형외과 ☎ 223-7000
무등빌딩(삼복서점) 옆

■ 권대승 성형외과 ☎ 224-6663
충파 맞은편 3층

■ 김영길 성형외과 ☎ 227-3777
무등극장 앞

■ 김용직 성형외과 ☎ 384-7771
상무지구 BYC빌딩 3층

■ 김환익 성형외과 ☎ 225-9777
밀리오레건너편, 광주은행 3층

■ 류봉수 성형외과 ☎ 234-0009
충장로 1가입구 광일빌딩 옆

■ 서현메카 성형외과 ☎ 232-3600
전대병원 응급실 맞은편, 그랜드호텔 옆

■ 메디필 성형외과 ☎ 352-5252
농성동 신세계건너편, 메디필센터 2층

■ 박동균 성형외과 ☎ 236-3300
충장로 1가입구 3층

■ 벨 라 성형외과 ☎ 224-7300
남동 성당옆 웰크리니 3층

■ 신지호 성형외과 ☎ 222-0222
충장로 1가입구 건너편 광일B/D 2층

■ 세 련 성형외과 ☎ 616-6100
충장로4가 밀리오레 9층

■ 신세계 성형외과 ☎ 351-1114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안과 건물 3층

■ 오형근 성형외과 ☎ 366-0003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 아 델 성형외과 ☎ 232-2046
충장로1가입구 3층 227-2046

■ SM 美 성형외과 ☎ 376-4114
서구 치평동 상무타워 2층

■ 최광림 성형외과 ☎ 226-8575
밀리오레 건너편 TTL 건물 3층